# 북한 『로동신문』 사설 분석

2021-3 (5월/6월)

### 이기동 (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)

|    |    |    |       | 복     | 자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
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1. | 사설 | 목록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 |
| 2. | 주요 | 특징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2    |
| 3. | 개별 | 사설 | 특징   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 |      |



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,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사설 목록

| 순서 | 일자   | 제목   |
|----|------|--|
| 1  | 5. 1 | 전체 근로자들이여,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무한한 충실성과<br>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|
| 2  | 5. 3 |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<br>열어나가자             |
| 3  | 5. 5 |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5. 9 | 전당, 전국, 전민이 총동원되여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5.10 |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5.12 | 모내기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5.17 |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, 신념과 의리의 인간이되자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5.24 |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념을 받들어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<br>심부름군당으로 건설하자        |
| 9  | 5.28 |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,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직업동맹의<br>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    |
| 10 | 6. 2 |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혁명의 새 승리에로 질풍쳐 내달리자                   |
| 11 | 6.10 |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혁명가가 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6.14 |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의 국풍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6.21 | 전당,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<br>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  |
| 14 | 6.28 |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주요 특징

- ◆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개선 성과가 당의 권위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시현(5.1)
  - 기존의 절대적인 당적 권위관에서 다소 후퇴한 상대적 또는 조건부 당적 권위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권이 정책적 성과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
    - \* "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실제적인 변화, 실질적인 전진으로 당의 권위를 옹위"
- ◆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 김일성-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 동맹으로 개명하게 된 명분을 설명(5.3)
  -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최대 애국유산이므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곧 김일성-김정일주의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
  - 청년동맹 명칭에서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삭제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반영
  - \* "전 동맹의 김일성-김정일주의화를 총적목표, 총적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청년조직의 본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"
- ◆ 식량문제 해결은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제도 고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중대사로 규정하는 등 식량증산에 대한 절박감을 시현(5.9)
  - 식량문제 해결 → 인민생활 안정 및 향상 → 인민들의 혁명열, 투쟁열, 애국열 고조 →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 → 사회주의제도 고수라는 연관효과 제시

- ◆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을 기존 전통적 사업방식과 결합한 새로운 대중운동(집단적 경쟁운동)으로 정의(5.10)
  - \* "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은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과 집단적 경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대중운동이다"
  - 전형단위 창조 →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 전개 → 전국적인 연대적 혁신과 새로운 대고조 앙양이라는 연쇄작용을 기대
  - \* 기존 전통적 사업방식은 본보기(모범) 창조 → 모범 일반화 → 혁명과 건설 전반에서의 앙양이라는 연쇄작용틀로 구성
  - 특히, 사상, 기술, 문화의 3대 영역에서 부단한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방식임을 강조
  - 전반적으로, 각 부문별 전형단위 창조 → 성과, 경험, 교훈 공유 및 따라앞서기 경쟁 조직·전개 → 연대적 혁신 앙양 → 자강력 증대 및 모든 지역과 부문 간의 균형적·통일적 발전 도모라는 틀로 구성
  - \* 전형단위 창조는 해당 단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가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하고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정의
  - \* 전형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고조화 과정은 우리 식, 우리 지혜, 우리 힘으로 전진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되는 과정으로 정의
- ◆ '세계'를 경쟁상대로 지목하면서 일종의 '대내외 추격발전'을 촉구(5.10)
  - 앞선 단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과 상품들을 부단히 개발, 창조하고 뒤떨어진 단위는 이를 따라앞서기 위한 추격전을 전개(대내 추격발전)하는 것이 최단기간 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지름길(대외 추격발전)
  - \* "도처에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된바람이 휘몰아칠 때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, 군사분야에서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분야에서도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 것이다"
- ◆ 기관본위주의를 집단적 경쟁운동, 특히 경험교환운동의 최대 장애요소로 규정 (5.10)

- 세계가 빠르게 새 기술, 새 제품 경쟁개발을 벌이는 시대에 자기 단위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진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비판
- ◆ "당의 사상에 배치되는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 것"을 공개 사설을 통해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민들과 간부들의 불만 증대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시사(5.17)
  -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내핍 강요, 과도한 주민동원, 강력한 간부통제와 사회통제 등으로 인한 불만증대 및 확산 가능성이 점증하는 현실을 반영
- ◆ 김정은이 새로 제시한 '심부름군당 건설사상'과 관련, 기존 '어머니당'과 새로운 '심부름군당' 사이의 연관논리를 제시(5.24)
  - 어머니를 심부름군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
  -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주인에 대한 심부름군의 태도가 유사하다는 논리를 구사
  - \* "어머니는 자식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군이라고 할 수 있다", "심부름군 당은 자기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인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만 일하고 주인을 높이 섬기듯 인민을 정히 받드는 것"
- ◆ 김정은의 심부름군당 건설사상을 당의 존엄과 권위를 제고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규정(5.24)
  -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녀야하고, 존엄과 권위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의해 담보되며, 지지와 신뢰는 인민에 대한 당의 헌신과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에서 발현된다는 논법 활용
  - 한편, 과거 사회주의집권당의 실패 사례를 들어 '권위'와 '권위주의'의 차이를 부각
  - \* "지난 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 집권당들이 자기의 본태를 잃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<u>권위주의적</u>으로 나갔기 때문이다"

- ◆ 5개년계획 첫해 상반기 성과는 첫해 성과에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지니는 한편,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임을 강조(6.2)
  -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성과와 당의 존엄과 권위 보위를 연계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간주
  - 6월 중 상반기 계획 수행 성과를 대략적으로 평가한 다음, 부진 평가가 나올 경우 정치적 고려하에 하반기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 시사
- ◆ 새 세대들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(6.10)
  -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는 등 혁명 투쟁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
  - 혁명을 책임져야 할 새 세대들의 사상적 변질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임
  - \* "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한 충신으로 키우는데 백만자루, 천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여야 한다는 것이 장구한 혁명투쟁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"
- ◆ 김정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중부담에 직면한 현실을 강조한 것은 5개년계획 첫해 성과 부진에 대비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에 주목(6.14)
  -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일과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이중부담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
  - 인민생활 향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, 국가의 안전(핵전쟁 억제력)과 인민의 생명(코로나19 방역)을 지켜낸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
- ◆ 어려워진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상반기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(6.21)

- 상반기 공업총생산액계획 초과 수행 및 물량적 성장 등 경제 전반이 일어서고 있다고 평가
- 남은 기간의 투쟁여하에 따라 당대회 권위 보위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므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
- ◆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표현, 통치이념 조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 (6.28)
  - \* "우리 당의 지도사상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향상시키는 것이다"
  -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관련한 언급 부재
  -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규정해왔고 이는 8차 당대회에서도 재확인
  -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 "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"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, 8차 당대회 이후 통치이념 조정이 있었거나 사설의 오류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

### 개별 사설 특징

5월

- ① 전체 근로자들이여,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자(5.1)
  - 5.1절(근로자의 날) 131주년을 기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사설
  -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개선 성과가 당의 권위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시현
    - 기존의 절대적인 당적 권위관에서 다소 후퇴한 상대적 또는 조건부 당적 권위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권이 정책적 성과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
    - \* "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실제적인 변화, 실질적인 전진으로 당의 권위를 옹위"
  - 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
    - (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충직하게 받들기) △김정은이 있어 필승한다는 신념 간직 △김정은의 사상과 권위 결사보위 △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 및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△김정은과 어머니당의 위민헌신에 대해 충성으로 보답
    - (시련 돌파와 부강조국 건설에서 기적과 승리만을 떨쳐온 위대한 력사와 투쟁 정신 굳건히 계승) △전후복구건설기와 천리마시대 영웅들을 본받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진군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기 △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 것과의 결별 및 새로운 혁신, 대담한 창조, 부단한 전지 이룩하기 △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공격기상으로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을 전개하여 애로와

난관을 돌파하고 생산과 건설의 동음 울리기 △전인민적 총진군의 앞장에서 혁신과 비약 일으키기 △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은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 에너지와 설비, 연료, 자재를 적극 생산, 보장 △경공업부문은 원료, 자재의 국산화, 재자원화를 통한 소비품 증산 △수산부문은 민물양어를 위주로 양어사업 육성 △건설부문은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 추동 및 살림집건설 추진 △농업부문은 과학농사체계와 방법 확립 및 다수확운동 전개를통해 알곡생산계획 무조건 수행 △과학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절박하게 제기되는 경제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주력

- (온 나라에 집단적 혁신의 불길 세차게 일으키기) △뒤떨어진 사람을 도와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축하여 난관을 함께 타개하는 집단주의 미덕과 미풍 발휘 및 국풍으로 만들기 △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과 사회주의경쟁 활발히 전개 △특수단위화와 본위주의 척결 및 국가이익 우선시
- (당조직의 사상사업 위력 백방으로 강화) △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사상과 당정책 깊이 각인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공세적 추진 △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실제적인 변화, 실질적인 전진을 통한 당의 권위 옹위 및 당의 구상과 결심 실천을 위한 정치사업 진행 △선전 선동 수단과 역량 총동원 및 실효성있는 선전선동 전개

### ②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(5.3)

- 4월 27일 개최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기념 사설
  - 김정은은 동 대회에 보낸 서한 <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 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>에서 "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 것"을 청년동맹의 기본임무로 제시
  - 동 대회에서 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강도 높은 투쟁을 촉구
  - \* "현시기 청년동맹사업이 당의 의도와 시대적 요구에 원만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의

원인은 청년동맹 일군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하고 그릇된 일본새와 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"며 "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엄중하다"고 경고

- 청년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는 것을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규정함 으로써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한편, 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청년 들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
  - 김정은 서한도 △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△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 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지적
- 동 대회에서 김일성-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명하게 된 명분을 설명
  -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므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곧 김일성-김정일주의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
  - \* "전 동맹의 김일성-김정일주의화를 총적목표, 총적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청년조직의 본태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"
  - 청년동맹 명칭에서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삭제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반영
- <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자!> 구호 하에서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
  - (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히 받들기) △김정은의 영도는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굳게 믿고 따르기 △혁명선배들의 충실성을 이어받아 김정은의 사상과 권위 결사용위 △김정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당의 구상과 의도 무조건 결사관철 △김정은의 서한에 담긴 심오한 사상에 대한 학습열풍 일으키기 △새로운 명칭에 담긴 뜻과 청년동맹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과 임무 똑똑히 새기기
  - (8차 당대회 결정관철에 청춘의 슬기와 용맹 남기없이 떨치기) △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생산투쟁, 증산투쟁 맹렬히 전개 △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 교환운동 차원에서 청년돌격대운동, 청년분조, 청년작업반운동 등 여러 대중

운동 실속있게 전개 △자기 부문, 자기 단위 발전의 주체가 되어 새 기준, 새 기록을 끊임없이 세우고 새 기술과 발명, 창의고안을 내놓는 노력혁신자, 실력가되기

- (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청춘들의 정신도덕적품성을 적극 따라배우기) △전세대 청년들처럼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 △동고동락을 통해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개해 나가는 순결하고 고상한 공산주의미덕 생활화 △대중 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 활발히 전개 △언어예절, 인사예절, 공중도덕 준수 △사회주의,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, 개인이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의 비타협적 투쟁 전개
- (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책임과 역할 완수) △동맹안에 당정책을 적시에 전달 침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체계와 규률 확립 △청년들의 사상감정과 정서, 의식수준에 맞는 새로운 사상교양방법 끊임없이 탐구하고 적용 및 5대교양부단히 심화 △핵심청년들이 뒤떨어진 청년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 강력히 전개 △김정은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높은 문화적 소양, 고상한 품성과 뜨거운 인정미를 겸비한 팔방미인이 되기 △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움직임과 심리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침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장악하여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기
- (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지와 지원) △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기 △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 단위, 전형단위창조운동 실속있게 전개

#### ❸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자(5.5)

- 5개년계획 수행에서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에 발휘된 '영웅적 투쟁 정신'을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는 사설
  - 두 시기를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장 눈부신 비약과 전진을 이룩한 시기로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오버랩하는 방식으로 분발을 독려

\* "전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첨예하였고 경제형편도 참으로 어려웠다.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고 대국주의자들의 간섭 또한 로골적이었다. 피로써 전쟁승리를 안아온 우리 인민은 재더미우에서 맨손으로 복구건설을 시작하여야 하였다"

#### ○ 두 시기로부터 따라 배워야 할 교훈들을 설명

- (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충성의 일편단심) △수령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어떤 사심도 없이 수령만을 지지 △수령이 부여한 과업을 최상의 영예로 받들고 결사관철
- (휘황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불같은 열망과 낙관, 자력갱생의 혁명적 의지) △유례없이 엄혹한 난관과 도전 속에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전진 △설비와 자재의 부족에도 제국주의자들이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것을 3년 만에, 그리고 남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한 공업화를 불과 14년 만에 완수
- (집단주의적 사회 기풍) △어렵고 부족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넘쳐흐른 인간미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대가정 형성 △당의 사상과 영도를 받는 한길 에서 호상존중, 호상방조하고 동고동락하는 집단주의 기풍 확립

#### ○ 두 시기의 영웅적 투쟁정신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

- (수령이 있어 휘황찬란한 앞날과 확정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간직) △ 전세대들처럼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 백방으로 보위 △김정은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실천이라는 신념화 △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충직히 받들기 △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영도자만을 끝까지 따르기
- (당대회 결정관철 투쟁 과감히 전개) △두 시기 영웅들처럼 난관극복정신을 지니고 당정책 관철 투쟁 전개 △자신이 세운 결의목표를 일별, 주별, 월별, 분기별로 어김없이 집행 △낡은 도식과 틀을 깨고 모든 사업을 참신하고 진취적으로 추진 △형식주의, 요령주의, 패배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 관점을 철저히 척결하고 계속 혁신, 계속 전진하기 △혁신적 안목을 지니고 대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자기 부문, 자기 단위의 발전 주도

- (집단주의 발양) △자신보다 동지들과 집단 우선시 △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는 분위기 확산 △선진 단위의 후진 단위 지원 및 좋은 경험 공유 △국산화, 재자원화 실현에서 성과 거양 △국가이익과 집단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척결
- (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제고)

#### 4 전당, 전국, 전민이 총동원되여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(5.9)

-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농촌지원을 장려하는 사설
  - 식량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제도 고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중대사로 규정하는 등 식량증산에 대한 절박감을 시현
  - 식량문제 해결 → 인민생활 안정 및 향상 → 인민들의 혁명열, 투쟁열, 애국열 고조 →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 → 사회주의제도 고수라는 연관효과 제시
-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 자체의 힘으로 획기적인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
  -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해
  -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알곡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
-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해와 태풍피해를 예상하는 가운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에 집중할 것을 주문
  - 다른 방법이 없이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만이 최선의 방략이므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최대 분발과 아낌없는 농촌지원 필요성을 역설
- 농촌지원사업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모든 부문,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노력적으로 지원) △전당, 전국, 전민 <del>총동</del>원

△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생산·건설과 동시에 더 많은 노력을 농촌지원사업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사업 전개 △지원자들은 농사일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 △맡겨진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는 기풍 발휘 △서로 돕고 이끌며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 활벌히 전개 △농장원들의 생활을 도와주어 농업생산에서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 발휘 유도

- (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 강화) △영농물자들을 적시에 질적으로 보장 △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는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별, 농장별로 소요되는 영농설비, 자재의 양을 정확히 장악한 기초위에서 현실적인 보장대책 수립 △국가적으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어김없이 보장하는 엄격한 질서와 규률 확립 △연관부문과 단위들은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생산과 공급에서 농촌을 우선시
- (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제고)

#### **⑤**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자(5.10)

- 사회주의건설 전반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 (이하 집단적 경쟁운동)을 촉구하기 위한 사설
  - 이 집단적 경쟁운동을 조국의 운명과 자기 단위의 전도, 자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사로 규정
    - \* "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이 운동의 거세한 불길이자 우리 국가의 전진비약이다"
- 전통적 사업방식과 결합한 새로운 대중운동으로 정의
  - \* "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은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과 집단적 경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대중운동이다"
  - 전형단위 창조 → 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 전개 → 전국적인 연대적 혁신과 새로운 대고조 앙양이라는 연쇄작용을 기대
  - 기존의 본보기(모범) 창조 → 모범 일반화 → 혁명과 건설 전반에서의 앙양이라는 전통적 사업방법을 재구성한 방식

- 특히, 사상, 기술, 문화의 3대 영역에서 부단한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방식임을 강조
- 최근년간 집단적 경쟁운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적시하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
  - △농업부문에서의 다수확 단위와 다수확자 대열 증가 △건설부문에서의 놀라운 비약 △강원도와 평안북도 등에서의 눈에 띄는 변모 △수없이 많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 배출
  - 집단적 경쟁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새로운 혁신, 대담한 창조,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전사회적 기풍 확립을 주문

#### ○ 집단적 경쟁운동의 전개방식을 설명

- 전형단위 창조는 해당 단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가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하고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
- 전형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고조화 과정은 우리 식, 우리 지혜, 우리 힘으로 전진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되는 과정
- 전체 과정은 각 부문별 전형단위 창조 → 성과, 경험, 교훈 공유 및 따라앞서기 경쟁 조직, 전개 → 연대적 혁신 앙양 → 자강력 증대 및 모든 지역과 부문 간의 균형적, 통일적 발전 도모

#### ○ 집단적 경쟁운동 강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

- (우리 힘,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건설 전반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) △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은 제일 값비싸고 믿음 직한 전략적 자원 △집단적 경쟁운동은 내부적 힘을 최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 △역사적으로도 천리마시대 등 혁명의 고조기에는 집단적 경쟁의 시기와 일치

- (전체 인민을 열렬한 애국자,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계기) △집단적 경쟁운동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이고 건전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높은 기술실무능력, 집단주의 생활기풍 체현의 계기 △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, 패배주의, 보신주의, 안일해이 등 온갖 사상적 병폐 척결 및 맹렬한 경쟁을 통한 더 많은 공격형 투사 육성의 계기 △선진경험과 기술 전수 및 새로운 경험 창조 과정을 통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재능있는 근로자 육성의 계기
- 당의 거창하고 대담한 작전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집단적 경쟁 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가운데 '세계'를 경쟁상대로 지목하면서 일종의 '대내외 추격발전'을 촉구
  - (당의 작전도)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,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(현재) →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대하고 문명한 인민의 낙원(멀지않은 미래)
  -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남들이 10년동안에 한 것을 1년 안에 해내는 분위기 확립을 위해 집단적 경쟁운동이 필요
  - "집단적 경쟁운동이 없이는 강국의 존엄과 지위를 지킬 수 없다"는 절박감도 시현
  - 앞선 단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과 상품들을 부단히 개발, 창조하고 뒤떨어진 단위는 이를 따라앞서기 위한 추격전을 전개(대내 추격발전)하는 것이 최단기간 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지름길(대외 추격발전)
    - \* "도처에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된바람이 휘몰아칠 때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, 군사분야에서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분야에서도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 것이다"
- 기관본위주의를 집단적 경쟁운동, 특히 경험교환운동의 최대 장애요소로 규정
  - 세계가 빠르게 새 기술, 새 제품 경쟁개발을 벌리는 시대에 자기 단위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진경험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비판
- O 집단적 경쟁운동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

- (끊임없는 발전과 혁신 분위기 확립 및 집단주의적 경쟁 체질화, 생활화) △발전하고 혁신하려는 지향과 열정이 미미한 곳에서는 현상유지와 보신주의가 지배 △앞선 단위를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를 발전의 사활적 요구로 설정하고 생산, 건설,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경쟁과정으로 일관 △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단계별, 연차별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착실히 점령
- (본위주의를 결정적으로 척결하고 좋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) △경험교환운동이 집단주의 위력으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중요고리하는 점을 명심하고 성과와 경험들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창조 △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록 국경밖을 볼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산단위, 개발단위, 연구단위를 찾아가 긴밀한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 △참관과 전시회, 방식상학(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를 모든 단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수업)과 같은 것을 자주 조직하여 앞선 단위의 경험과 기술을 신속히 일반화
- (인재와 과학기술 틀어쥐기) △집단적 경쟁운동은 인재와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는 경쟁운동 △인재에 의거한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 모색 △자체의 인재역량, 기술역량을 통해 노력, 자금, 자재 등 제기되는 문제들 해결 △ 자체 인재발굴, 적재적소 배치 및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 △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위력으로 투쟁목표 돌파
- (일군들의 정책적 안목과 기술실무능력 제고) △일군들은 당정책과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민감한 태도 견지 △자기 부문과 단위를 세계적인 전형 단위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책적 안목과 첨단과학기술 학습 △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독자 되기 △본보기와 표준단위들을 먼저 참관하여 선진경험을 배우고 전파하는 보급자 되기
- (당조직들의 지도적 역할 잘하기) △영도업적단위들이 선구자, 표준단위가 되도록 당적지도 심화 △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의 집단주의적 투쟁 기풍을 따라배우도록 교양사업 실효성있게 전개 △집단적 경쟁운동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평가 진행 △선질후량과 실리보장의 원칙에 맞게 선진경험 창조 및 활발히 교환 △모범적인 단위와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와 우대조치로 경쟁 열의 고무

- **6** 모내기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(5.12)
  -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모내기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
    - 모내기는 한해의 농사를 좌우하고 품이 제일 많이 들며 절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영농공정이자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
- 올해는 8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먹는 문제 해결과 사회주의건설 성과 거양을 위한 농업생산 증대를 강조하였으므로 식량 증산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
  - "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국가중대사"이므로 영농자재와 물자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농업전선에 당적, 국가적 힘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
  - 코로나19 등 격난 속에서 내적동력을 강화하면서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 하려면 식량문제, 먹는 문제 해결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고 인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
-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적기 보장) △모내기 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작성 △써레치기(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작업)를 비롯한 선행공정을 힘있게 추진 △충실한 모를 중단 없이 보장하는 대책을 면밀하 수립
  - (질적 수행) △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 △연유와 물을 절약하면서 높은 소출을 담보하는 마른논써레치기 널리 확산 △모꽂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모판흙이 붙은 채로 모내기하기 △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모판관리를 잘하고 그날 뜬 모는 그날로 포전에 내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 △농기계들의 만가동 보장

- (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) △농업성 일군들은 수시로 실태를 요해장악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를 바로 정하고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나타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기 △도, 시, 군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포전에서 작전하고 지휘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해결하고 대중을 앞장에서 이끌기 △농업근로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대 농민영웅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모내기에서 애국적 헌신상 발휘
- (온 나라가 농촌을 노력적으로, 물질적으로 지원) △전력부문은 전력을 무조건 보장 △화학공업과 기계공업 등은 화학비료와 농기계부속품 등 영농물자를 증산하여 적시에 제공 △철도운수부문은 영농물자를 집중적으로, 우선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 전개 △성, 중앙기관들은 농촌을 아낌없이 지원
- (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 제고)
- ♂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, 신념과 의리의 인간이 되자(5.17)
- O 8차 당대회 결정관철 과정에서 인민에 대한 김정은의 헌신에 대해 충실성으로 보답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
  - 항일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 때문에 전쟁, 전후 복구, 제국주의와의 대결, 강국 건설이 가능했음을 강조
  - 김정은 집권 10년은 전진과 승리의 지속이냐 후퇴와 패배의 나락이냐를 좌우하는 관건적 시기였으나 김정은 덕분에 부강조국건설 위업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선전
- O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하는 것이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, 인민의 낙원으로 빛내이는 결정적 담보로 규정하면서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의 업적을 소개
  - △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실천강령들과 전략전술 제시 △혁명의 참모 부인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 비상히 강화(정치) △인민경제의 자립성 강화(경제) △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의미있는 전진(문화) △공화국의 전략적 지위 급상승 (군사) 및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,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개막

-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, 철저한 체현자, 견결한 옹호 관철자 되기) △김정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△모든 문제를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재여보며 생각을 해도 김정은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걸음을 걸어도 김정은과 보조를 함께하기 △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, 시련이 가로 놓여도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절대성, 무조건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 △당의 사상에 배치되는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며 자본주의사상, 수정주의, 교조주의,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의 비타협적 투쟁 전개
  - (김정은의 구상과 결심을 높은 사업실적으로 받들기) △당결정 무조건 관철이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 △자기 초소, 자기 일터를 수령사수전, 당정책옹위전의 제1선 참호로 여기기 △난관극복정신,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별, 주별, 월별, 분기별 전투목표 어김없이 수행 △따라앞서기, 따라배우기,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, 연대적 혁신과 새로운 대고조 앙양 △무엇을 하나 만들거나 건설해도 인민생활에서의 실질적 변화와 전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
  - (김정은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이기) △명예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당이 맡겨준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의리의 인간,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혁명적 원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견결한 투사 되기 △일군들이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드는데서 군중의 본보기 되기(수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심) △눈치놀음을 하고 자리지킴이 아니라 사업에서 대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고 잘못을 범해도 당에 솔직히 보고하고 책임지기 △김정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항상 가책을 느끼기
  - (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공세적인 충실성 교양 전개)
- O "당의 사상에 배치되는 반당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 것"을 공개 사설을 통해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민들과 간부들의 불만 증대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시사

-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내핍 강요, 과도한 주민 동원, 강력한 간부통제와 사회통제 등으로 인한 불만증대 및 확산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
- ③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념을 받들어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건설하자(5.24)
  - O 김정은의 '심부름군당' 건설사상 제시 기념 사설
    - 사설은 김정은이 '심부름군당'이라는 독창적 사상을 언제 어디서 제시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, 올해 3월 7일 개최한 시·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폐강사로 추정
    - 김정은은 폐강사에서 "위대한 우리 인민을 섬기는 길에서 인민들이 실지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자"고 역설
  - O 어머니를 심부름군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의식, 기존 '어머니당'과 새로운 '심부름군당' 사이의 연관논리를 제시
    - "어머니는 자식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군이라고 할 수 있다" 면서 "자신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"는 논리 사용
    - \* "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고 정성이다.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듯이 우리 당이 인민의 위하여 궂은일,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당건설사상, 당건설 리념이다"
    - 사설은 심부름군당을 "자기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인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만 일하고 주인을 높이 섬기듯 인민을 정히 받드는 것"으로 정의
  - O 김정은의 심부름군당 건설사상을 당의 존엄과 권위를 제고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규정

-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녀야하고, 존엄과 권위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의해 담보되며, 지지와 신뢰는 인민에 대한 당의 헌신과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에서 발현된다는 논법 활용
- 한편, 과거 사회주의집권당의 실패 사례를 들어 '권위'와 '권위주의'의 차이를 부각
  - \* "지난 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 집권당들이 자기의 본태를 잃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권위주의적으로 나갔기 때문이다"
- O 사회주의 당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당이념(인민의 이익 옹호)을 고수하는 것인데 노동당은 창건 이후 시종일관 창당이념을 견지해 왔다고 선전
  - 현재에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(정치방식), <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!> (구호),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(당활동의 최고원칙) 등 창당이념에 충실함을 강조
  - 과거 사회주의 집권당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상대적 우월성을 부각
  - \* "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당들에서는 이 문제(창당이념 고수)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혁명도 망치고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하지 못하였다"
- 김정은의 심부름군당 건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당건설과 당활동을 김정은의 인민관, 인민철학으로 일관시키기) △올바른 인민관 확립은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선결조건 △ 인민을 제일 중시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점과 태도에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발현 △김정은의 인민사랑과 무한한 헌신을 확고한 당풍으로 확립 △당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기층조직까지 김정은의 인민사랑, 인민존중의 사상으로 숨쉬고 김정은의 인민적 풍모로 일색화 △ 김정은의 인민관과 인민철학의 근본핵인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깊이 체득 △김정은의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세계 적극 따라배우기 △당사업 전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의 확고한 전환

- (전당이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동고동락하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기) △당조직은 친정집, 당일군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심부름군당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△군중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마음속 고충을 해결 △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, 부정부패행위와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
- (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 결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결사분투) △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험로를 선택하는 심정에서,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 △모든 작전과 실천도 인민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투쟁의 절대적 기준, 최상의 목표도 인민을 위한 것에서 출발 △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총진군에서 방향타역할을 잘하여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
- 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,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직업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(5.28)
- 5월 26~27 개최한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기념 사설
  - 김정은은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격려하고 참가자들은 서한을 체득하기 위한 강습회와 서한내용 관철을 위한 궐기모임을 개최
- O 직업총동맹 8차 대회의 의의를 설명
  - △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노동계급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대회합 △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더욱 분발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위한 전인민적 진군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회의 △직업동맹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 전환적 계기
- 김정은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기) △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김정은이 가리키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 △김정은의 사상과 권위 결사용위 △김정은의 서한에 대한 학습열풍 일으키기

- (5개년계획 수행에서 맏아들, 전위부대로서의 역할 수행) △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 전개 △과학기술자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, 현대화, 과학화 실현을 위한 투쟁 전개 △서로 돕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전진하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주의 위력과시 △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의 원료와 자재, 우리의 힘과 기술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원칙 견지
- (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정신으로 총진군 적극 추동) △집단주의 구호 하에 사회와 집단,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공산주의적 미풍과 미덕 적극 발양 △자신의 창조적 노동으로 나라와 인민의 번영과 행복에 이바지 △소극성과 보수주의, 침체와 답보를 불사르고 수세기를 단숨에 뛰어넘은 전세대들의 혁명정신으로 기적과 위훈 창조하기
- (직맹조직들의 역할 제고) △직맹조직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△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모든 교양과정이 동맹원들의 마음과 심장을 움직이는 정치사업 전개 △동맹조직생활을 정규화, 규범화하고 이를 통한 혁명적 단련의 강도를 부단히 제고 △모든 초급일군들을 유능한 실력가, 동맹의 핵심으로 준비시키기
- (당조직들이 직맹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지원)

### 개별 사설 특징

6월

- 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혁명의 새 승리에로 질풍쳐 내달리자(6.2)
  - O 5개년계획 첫해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상반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
    - \* "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것은 올해 과업관철에서 확실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"
    -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단위들이 5월까지의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하였다고 선전
  - O 5개년계획 첫해 상반기 성과는 첫해 성과에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지니는 한편,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임을 강조
    -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성과와 당의 존엄과 권위 보위를 연계하는 등 정치적 문제로 간주
    - 6월 중 상반기 계획 수행 성과를 대략적으로 평가한 다음, 부진 평가가 나올 경우 정치적 고려하에 하반기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 시사
      - \* "상반년 인민경제계획부터 철저히 수행하여야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 진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"
  - O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통해 5개년계획 첫해 과업관철의 확고한 전망을 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
- (당이 제시한 전투목표 점령을 위한 과감한 총돌격전 전개) △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이므로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의무 △당의 결정과 지시를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성,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결사관철 △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생산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며 계속혁신, 계속전진, 연속공격 전개 △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당면한 모내기를 서둘러 마치고 시기별 영농 작업을 적시에 질적으로 완수
- (자력갱생,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높이 발휘) △모든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정상화, 생산활성화의 동음 울리기 △예비와 가능성,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며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 △과학 기술의 역할을 높여 현존 경제토대 강화 및 생산적 앙양을 위한 긴박한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 △생산과 건설, 과학기술발전에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핵심적이고 주동적 역할 수행
- (일군들이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고 박력있게 추진) △일별, 주별로 계획을 어김없이 완수하기 위한 작전 수립 및 생산자들이 맡은 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직사업 전개 △계획집행정형에 대한 엄격한 총화 과정에서 우점 (장점)과 성과는 확대하고 결점과 편향은 적시에 개선하면서 미진한 전투 목표를 하나씩 점령
- (당원들의 핵심적, 선봉적 역할 수행 및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)

#### ❷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혁명가가 되자(6.10)

- O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
  -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 진군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헌신성에 의해 추동되는 돌격전이므로 혁명적 수령관을 요구
    - \* "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하며 혁명가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게 된다"

- 혁명투쟁사에 기록된 충신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혁명가들이었다고 강조
- 특히, 새 세대들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
  -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는 등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
  - 혁명을 책임져야 할 새 세대들의 사상적 변질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임
  - \* "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한 충신으로 키우는데 백만자루, 천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여야 한다는 것이 장구한 혁명투쟁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"
  - O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  - (김정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심장깊이 체득) △김정은이 있어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각인 △김정은의 사랑과 은덕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온넋과 심장을 바쳐 충성으로 보답 △김정은에게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고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드는 충신되기
    - (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) △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 △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힌다해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 △일편단심을 지닌 충신, 수령결사용위의 삶을 빛내여 가는 불굴의 투사 되기 △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혁명적 신념과 의지, 양심에 기초한 충실성 보이기
    - (당대회 결정관철 총진군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높이 발휘) △당의 사상관 철전, 당정책옹위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뚜렷한 발현 △말이 아닌 사업실적과 노력성과로 당을 받든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8차 당대회 결 정관철 투쟁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권위 옹위 △당대회 결정관철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결사의 정신과 당이 정한 시간 내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전투적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 발휘 △당정책을 즉시 집행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근절

- (일상생활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습벽화) △수령의 의도를 잘받들고 당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한가지라도 더 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색하고 실천 △김정은의 인민관과 인민적 풍모를 귀감으로 삼고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닌 충복이 되기 위해 분발 △모든 것을 당정책을 기준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만 수행하며 생활도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고지식한 사람되기 △항상 자신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 이르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기
- (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진공적으로 전개)

#### ❸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의 국풍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(6.14)

- O "유례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면서 자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"하기 위해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풍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
  - \* "고도의 자각성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며 만난을 헤쳐야 하는 오늘의 총진군은 모두가 힘과 지혜와 열정을 합치고 사랑과 정을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"
  -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미풍이 더욱 발휘되면 정치사상 진지가 강화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주장
- O 김정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중부담에 직면한 현실을 강조한 것은 5개년계획 첫해 성과 부진에 대비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에 주목
  -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일과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제적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도출 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
  - 인민생활 향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, 국가의 안전(핵전쟁 억제력)과 인민의 생명(코로나19 방역)을 지켜낸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

#### O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 발휘의 의미를 설명

- △김정은의 인민사랑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(집단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향) △만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(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애국자로 키워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) △덕과 정으로 화목한 우리 사회의 국풍,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(집단주의정신 발양)

#### O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국풍 발양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

- (동지와 집단을 위한 헌신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집단주의적 인생관 견지) △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 중시 및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 △순간을 살아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분투 △아파하는 사람은 위해주고 불편해 하는 사람은 부축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심없이 도와주는 덕행의 체현자 되기 △누가보건말건, 알아주건말건 사회와 집단에 보탬을 주면 그만 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동지들을 위해 모든 정을 쏟는 미풍의 소유자 되기
- (전당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동고동락하는 기풍 높이 발휘) △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김정은의 심부름군당 건설사상과 이념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전당에 차넘치게 하기 △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고 수재민들은 군당위원회 청사에서,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던 친인민적 기풍 발휘 △당사업 전반에 인민 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△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고생을 낙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한 일에 진심을 바치기 △어렵고 힘든 때 일수록 주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을 더 따뜻이 돌봐주고 실지 덕을 주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노력
- (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들의 정신도덕적 풍모 적극 따라 배우고 실천에 구현하기) △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고 집단의 교양과 도움으로 뒤떨어진 사람을 적극분자, 선진분자로 개조 △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열혈 충신들과 자기 단위를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 붉은 선동원들, 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, 목숨도 주저없이 바친 천리마시대의 인간처럼 살며 투쟁하기

- (개인주의적 생활풍조 철저히 배격) △사회주의생활양식, 집단주의생활기풍이 최고라는 긍지와 자부심 깊이 간직하고 온갖 이색적인 생활풍조 배격 △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척결 및 모든 사업을 국가이익에 철저히 지향·복종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
- (당조직들의 역할 제고)
- ◆ 전당, 전민이 견일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(6.21)
  - O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사설
    - \* "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을 벌려 올해에 기어이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"
    - 동 전원회의에서 △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정형 중간총화 △경제 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 수립 △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·결정
    - (동 전원회의의 기본사상)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 목표들을 완수하고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
  - O 어려워진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상반기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
    - 상반기 공업총생산액계획 초과 수행 및 물량적 성장 등 경제 전반이 일어서고 있다고 평가
    - 남은 기간의 투쟁여하에 따라 당대회 권위 보위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서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므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
  - 8기 3차 전원회의 개최의 의미를 설명
    - 올해의 정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

- 온갖 역경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전진시켜 나가는 노동당의 불패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회의
-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서 무조건성, 철저성, 정확성의 기풍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
-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당의 혁명적 의지가 과시된 역사적 회의
- 당이 제시한 위민헌신 이념을 구현한 조치들을 적시
  - 현 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시행조치로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특별명령서 발령
  - 가장 엄혹한 환경 속에서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정책 수립
  - 8기 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  - (김정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기) △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변심없이 김정은의 혁명관, 인민관을 심장깊이 체득 △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
    - (8기 3차 전원회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관철에 총매진) △전원회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통해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 △자기 부문과 단위의 과업들을 정확히 알고 그 실현을 위한 확실한 방도찾기 △올해 전투목표수행이 하반기 투쟁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증산투쟁, 생산돌격전 과감히 전개
    - (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,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높이 발휘) △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은 과학이고 진리 이며 승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만난시련 돌파 △당이 제시한 전투과업 수행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사생결단의 의지 발현 △전투장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정신과 기백이 넘치 도록 하기 △집단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서로 돕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전진

하는 기풍 높이 발휘 △농업부문은 식량증산을 위한 자연재해 최소화 대책 철저히 수립 △전체 인민은 올해 식량생산을 자신의 운명,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활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농업전선을 노력적으로,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

- (모든 일군들은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추진) △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결정을 무조건 관철 △당대회가 제시한 이민위천, 일심단결, 자력갱생 이념을 명심하고 각성분발 △상반기 부과된 과업집행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확대하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극복하면서 현실적 조건과 정책적 요구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조직전개 △모든 단위에서 전원회의 결정에 입각한 하반기 전투목표를 엄밀히 따져보고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여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만들기
- (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한 올해의 총진군 다그치기) △그 어떤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과학기술을 믿고 그 위력으로 만난을 돌파 △과학기술인재를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 제고 △과학기술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,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최대의 분발력 발휘 △원료, 자재, 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박차 △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 및 가치있는 연구성과 공유
- (당사업 혁신 및 강화)

#### **6**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자(6.28)

- O 김정은의 인민관, 인민철학을 명심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 확립을 촉구하는 사설
  -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로 정의
-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표현, 통치이념 조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
  - \* "우리 당의 지도사상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생활을 끊임 없이 향상시키는 것이다"

-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관련한 언급 부재
-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규정해왔고 8차 당대회에서도 재확인
-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 "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-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"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, 8차 당대회 이후 통치이념 조정이 있었거나 사설의 오류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
- O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 당풍을 세운다는 의미를 정의하고, 그 의의를 설명
  - (정의) 모든 당조직과 당원들이 김정은의 위민헌신 이념 하에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기풍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
  - (의의) △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 (강력한 비상방역조치로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고 수해복구사업을 통한 사회주의 선경 마련 등) △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근본담보(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현존하는 난관들을 가장 빨리, 가장확실히 돌파하기 위한 근본방도)
- O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을 통해 혁명대오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
  - (김정은의 위민헌신 명심) △모든 당조직들은 김정은의 심부름군당 건설 사상의 참뜻을 깊이 명심 △자신의 고뇌와 피땀의 대가로 인민들이 웃을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는 것이 당일군의 투쟁이고 생활이라고 한 김정은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만 사업하기 △군중을 대할때마다 김정은을 충심으로 받드는 위대한 인민이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 △김정은의 희생적인 위민헌신 세계 따라배우기

- (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 우선 해결) △어머니당의 한 조직, 한 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인민대중 속에서 적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풍 확립 △살림집문제와 식생활문제, 소비품문제 등 자기 지역과 단위 주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관련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해결 △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민들이 이용할 기초식품과 의약품, 필수소비품 증산 및 교육과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주력 △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사활적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는 데 당 화력을 집중 △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·이용하여 인민소비품 증산을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
- (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도록 올해 전투목표를 수행) △상반기 계획수행과정을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보장에 대한 기여 견지에서 분석총화하고 하반기 사업을 면밀히 추진 △무슨 일을 하든 인민의평가를 받을 수 있게 양심적으로, 완전무결하게 수행 △5개년계획 수행에서인민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하고 인민의 믿음과기대에 보답
- (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) △당과 인민을 이탈시키는 세도와 관료주의, 부정부패행위 척결 투쟁 지속적으로 전개 △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전쟁에 주체적으로 참여 △모든 당일군들은 고지식하고 겸손하며 청렴결백하게 사업하고 생활하는 것을 체질화
- (당책임일군들의 역할 강화)

//끝//